

讀書雜記

[學海] (1937년)

讀書는 人生의 糧食이다. 讀書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存在조차도 없을 것이다. 나는 人生의 糧食으로서의 讀書도 껍이나 즐겨하지만 그저 어쩐지 '책'이라면 無條件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根性を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듯싶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책에 愛着을 두는 마음은 내 머리에서 언제든지 떠날 듯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타고난 이 天性은 자주 周圍에 벌어지는 많은 障害에 부딪치는 때가 많이 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더한층 讀書에 대한 愛着을 느끼게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과 씨름하여온 몸이다. 아직도 별거숭이 六, 七歲에 嚴父의 膝下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종아리를 맞아 가면 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시도 '책'과 멀리한 때가 없다. 책과 사귀기 五十年間, 나로서는 比較的 廣範圍의 書籍을 뒤적여 보았었다. 在學時에는 원체 法律科를 專攻하였더니 만치 法學에 大部分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나 自然科學 修養書籍등에 이르기까지 이모 저모로 여러 方面의 책을 보아 온 셈이다. 그중에는 머리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뜻깊은 句節도 많이 있고 내 心琴을 울리던 위대한 어른의 말도 많이 있었다. 이제 조용히 앉아 讀書 五十年間을 돌이켜보면 대체 네 갈래로 區分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 어려 漢文學을 工夫하던 때일 것이다. 이때에는 孔孟의 儒敎思想과 史略 等 支那史에 關한 것들을 읽었으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沒批判的 無咀嚼的 讀書 方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部門의 讀書는 이 漢學修業의 첫 課程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原動力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가끔 새삼스러우리 만치 깨닫게 됨이 사실이다. 둘째 = 學校時代인데 中學時代부터 나는 特히 歷史學에 많은 關心을 갖게 되어 學校에서 배우는 歷史時間도 있지만은 教科書 以外の 歷史書籍에 많은 힘을 기울였었고 大學시절에는 法學을 專攻했던 관계로 法律書籍을 주로 보아 왔지만은 史學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밖에도 文藝書籍을 또한 熟讀하게 되어 톨스토이의 <人生>, <戰爭과 平和> 등은 아직도 熟讀하던 그때의 일이 記憶에 새로운 바가 많다.

셋째 = 在監時代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 時期가 나에게서 가장 조용히 讀書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던 時期였다. 또한 머리를 가다듬고 思索과 熟考를 거듭해 볼 수 있었던 때도 이 在監時代라고 하겠다. 이때에 나는 비로소 커다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宗教에 아무런 知識도 못가졌던 나는 처음으로 基督教과 佛敎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機會를 얻게 되었었다. 佛經을 通讀하였고 舊約全書와 新約全書를 모조리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아직까지 밟아보지 못한 未開의 땅을 비로소 開拓하는 듯하였다. 넷째 = 그뒤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인데 역시 현재의 생활이 생활이니 만치 여러 方面의 書籍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주위의 바쁜 일로 말미암아 讀書할 틈을 比較的 많이 얻지 못하는 것이 最近의 사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修養書籍도 자주 뒤져보지만은 史學도 펼쳐보게 된다. 그밖에 月刊 雜誌와 新聞 등은 朝鮮에서 나오는 것이나 東京方面에서 나오는 것은 대강 題目만이라도 훑어보게 되고, <中央公論> <改造> 등은 比較的 每月 손에 쥐어보게 된다. 나는 오늘날까지 책과 벗삼아오는 동안 知識의 無窮함을 깨닫는 동시에 '책'이란 얼마나 우리 人類文明에 커다란 存在인가 함을 느끼게 된다. 모든 책(書籍)은 文明의 母胎이다. 文明으로 한걸음씩 달음질치는 오늘의 人類로서 어느 누가 讀書를 멀리할 것인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이는 人類生活에 있어서 가장 貴重하고 아름다운 心源일 것이다.